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스팟 리포트타주

기획 및 분석: 이순영 (트렌드 전문가)

김세은 (트렌드 리서처)

취재 및 사진/비주얼 맵핑: 김세은



테마 명:

-제 5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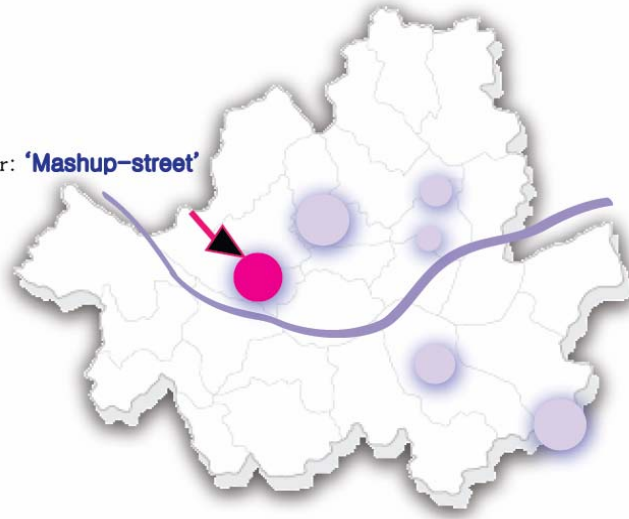
Mash up- street

메쉬 업 스트리트

Mash up-street

홍대앞 거리<hongdae>

-Fashionista trend setter: 'Mashup-street'



4 focus in hongdae

Focus: Mashup-street

Sub-1: Pop-p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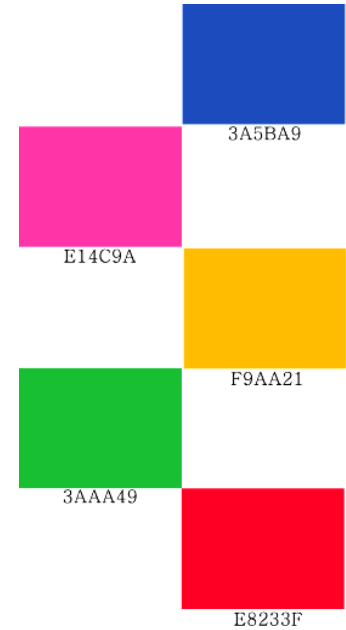
Sub-2: Remix-street

Sub-3: Networking-message

Sub-4: Playful-space

Mashup-street

이것저것 모든 것이 혼재되고 믹스되어 새로운 것을 형성한다는 의미의 'Mash-up'. 홍대 앞 거리는 이미 오래전 부터 젊은이들의 예술적 집합장소로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다. 자유로운 경험, 창작의 시도, 놀이문화가 거리 속 곳곳에 묻어 나 있는 지역이다. 엄연하게 그 지역의 이름은 상수동이지만 대중들에게 그곳은 홍대 앞으로 불리며, 자유로운 예술적 감성을 품어내고 있는 것이다.



팝(pop)적인 요소를 갖는 각종 물건들은 거리를 온통 뒤 덮고 있다. 그야말로 크로메틱 칼라의 향연이다. 지역적으로 대학 주변에 인접하며, 젊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로 문화적이며 예술적인 감각이 가득한 곳이다. 이러한 특성의 영향으로 스트리트 브랜드가 형성되며, 국내에서 가장먼저 ‘프리 마켓’이 활성화 되었다. 기발하고 독특한 컨셉의 제품, 직접 손으로 채색을 하거나 장식적 요소를 부가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여 버라이어티한 패스트(fast)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영 마인드의 거리는 캔버스가 되어 매일매일 새로운 색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음악과 함께 스타일이 믹스 되어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프리마켓이 가장 먼저 형성된 곳이 홍대 거리로 언급 하였다. 그와 함께 가장 먼저 형성된 것이 있으니 클럽 문화이다.

국내에서 클럽이나 파티 문화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곳이 홍대 앞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클럽문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음악과 스타일이다. 제 3의 문화로 보여지는 언더그라운드 무대의 인디 밴드의 록, 힙합 등의 음악과 그것을 향유하는 자유로운 스타일이 함께 보여지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점은 단순한 믹스가 아닌 리믹스라는 점이다.



33AD88



E92152



CCDC35



2D1243



E11880



769CC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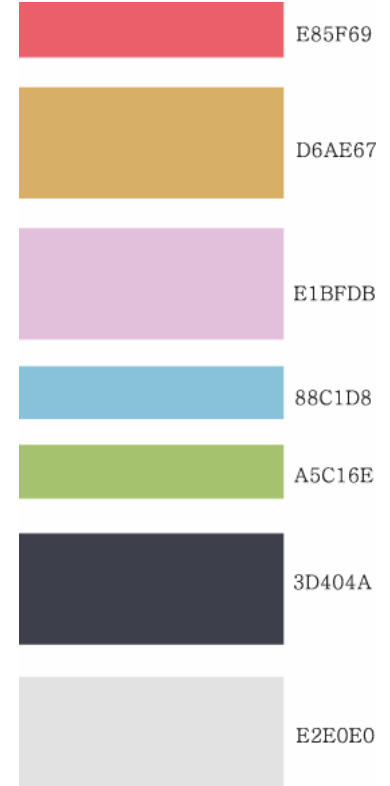


959396

기존의 생각하던 스피커나 LP판은 디스플레이 용도로 전혀 다른 오브제와 리믹스 되어 이색적인 형태를 만들어내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하이탑 운동화는 케익이 진열되어 있을 법한 진열장에 전시되어 그 자태를 뽐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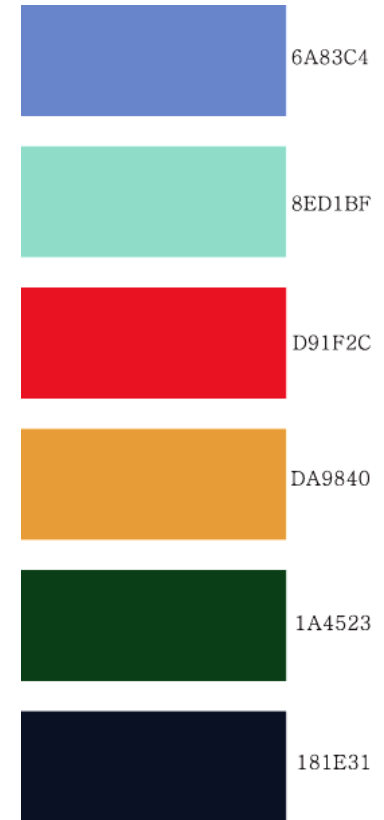
이러한 문화는 마니아 층을 두텁게 형성하고 있으며, 슉을 운영하는 젊은 CEO의 생활신조는 일을 즐겁게 놀면서 하는 것! 세계에서 24개만 생산된 리미티드 에디션의 스피커를 수집하며, 낮에는 일반 오피스로 운영되지만 저녁 시간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보드카를 즐길 수 있는 바(bar)로 변신하는 리믹스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다.

크로메틱 칼라를 기본으로 진한 염료에서 오는 칼라의 바이올렛과 핑크가 강렬 하게 부각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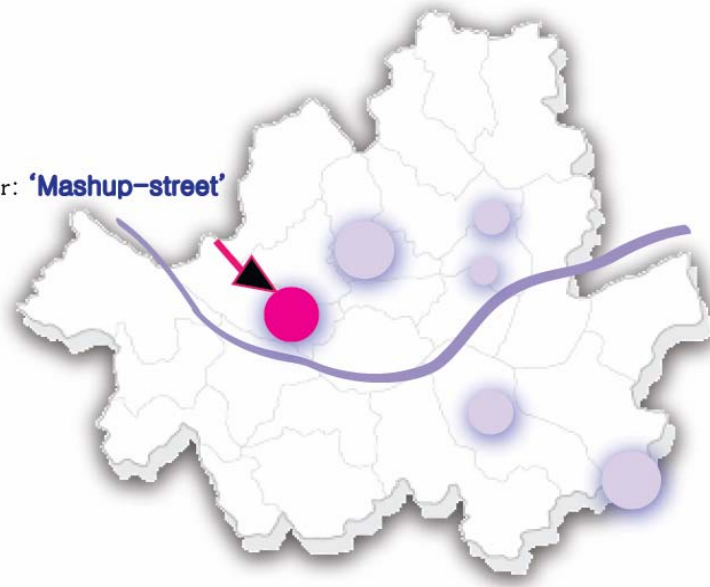
그라피티로 패턴화된 거리!!

반 사회적 언어로의 수단으로 표현 된 그라피티가 아닌 그들만의 언어로 거리를 연결하고 있다. 그것이 글, 숫자, 그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믹스되어 그들 스스로의 문화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마니아 적 취향 독특한 개성들을 어필하고 있는 개개인들은 각자가 서로에 대해 관심이 없는 듯 보이지만 그러한 개성을 인정하며 존중해주며 각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인터넷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일이 더 쉬운 현시대에 오히려 흥대 거리에는 아날로그적인 메시지가 더 자유롭게 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칼라무드는 소프트 한 무드로 페이퍼칼라와 그래픽 라인의 칼라 무드가 연출된다.



젊음과 예술적인 감각이 가득한 이곳에 즐거운 편(Fun)코드가 빠질 수 없다. 최첨단의 게임프로그램이 아닌 단순한 기능의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게임 혹은 오락이라고도 불리며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며 역사를 지내온 것이 이제는 전시를 통해 문화적인 것을 어필하려고 나섰다. 이러한 문화도 홍대거리에 있는 갤러리에서 열리며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으며, 그러한 공간으로서 앞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믹스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거리에 보이는 뽑기 게임이나 테트리스, 오락 속 캐릭터들은 문화와 기술에 진보에 발맞추어 새로운 모습으로 재 창조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의 칼라 무드는 아나크로닉(anachronic)무드로 모니터에서 발광하는 블루계열의 라이팅 칼라와 대조적으로 염료칼라, 우드에 채색된 다양한 칼라들이 대조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Fashionista trend setter: 'Mashup-street'



로컬컬라파노라마

Local color panorama

지역: 홍대 앞 거리
키워드: Mash up-street

Mashup-street

